

바르게 배우는 교회•행하는 교회•전하는 바로 그 교회

제40권 40호

2024.10.6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엑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

짧은 글 깊은 생각

전쟁이란 철두철미하게 힘의 대결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양보나 타협이나 화목이라는 고상한 말은 없습니다.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이런 전쟁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영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하여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의 길입니다.

한 날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시간이 오래지나도 나오지 못하니까

자신들도 그런 고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군인정신으로 무장하여 우리에게 맡겨준 임무를 충성스럽게 완수해야 합니다.

복음이 신실하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자 또 다른 사람 간의 연결고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른 생명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생명을 낳는 일을 위해서는 그 생명을 오래 오래 품고 ..

매일 그 생명을 느끼고.. 사랑하다가 ... 시간이 차면

품었던 그 생명을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서

내가 전하고 양육한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충성하는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도		다	같이
경배찬송	1장	다	같이
성서교독	55번 시127편	다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70장	다	같이
기도		1부	노응상집사
		2부	오종수장로
성경봉독	야고보서5:7-8	인	도 자
찬 양	내 노래 되신 주	성	가 대
설 교	나는 누구인가(농부)	박근상목사	
기도		인	도 자
찬 송	496장	다	같이
헌금봉헌	헌금함에	다	같이
헌금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같이
축복기도		박근상목사	

■ 금주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5:7-8

삼일예배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유혜환 집사
말씀/ 박근상 목사
예배소서 교회론(23) 3:17-19 사랑에 대하여
찬송/ 205장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성경- 호세아 강해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

- 1. 호세아서를 묵상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 더 좋아집니다.
- 2. 삼일예배는 “예배소서의 교회론”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 3. 월 1회 구역소그룹모임을 갖습니다.(교회공간) - 보고서 제출
- 4. 이번주 기독교 기본교리는 ‘죽음’입니다.
- 5. 8일(화) 호서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 6. 11일(금)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4층)
- 7. 11일(금) 이슬비전도대 사역이 있습니다.

10월 13일 2부 은세대 연합예배

10월 13일 주일 오후 12시 30분 남성모임
장소:4층데크

■■■ 말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김중기 이길연 2층 최정선 윤영숙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노응상 오종수	황학성 손영문/자녀감사
다음주	1층 오종수 김실근 2층 최정선 윤영숙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윤태영 김일남	문서준/생일감사

청소담당:2,3층 이번주(10,11) 10구역(황순화)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10,18) 01구역(천영순)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딤후 3장 16절 제 목 -말씀하시는 하나님	활동 1.10월 암송할 말씀은 딤후 3장 16절입니다. 2.오늘 활동은 말씀액자 만들기입니다. 3.주일 오후 1시 30분 새소식반 오세요.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9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기도자 -성미옥 선생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딤후 3장 16절 제 목 -말씀하시는 하나님	1.다음주는 온세대 연합예배로 예배합니다. 2.바이블타임 계속 읽기 3.전도할 친구들 위해 기도하기 4.새소식반 토요일 오후 2시 4층 유아부실로 오세요.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사회자 -오지운 자매 기도자 -김지민 자매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창세기 29장 16~30절 제 목 -아낌의 사랑	1.다음주일 10/13(주)에는 온세대 연합예배로 본당에서 11시에 드립니다. 2.10월 20일 (주일)대표기도 김형섭형제입니다. 3.중간고사 기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고등부 도길 기도합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사회자 -한현구 형제 기도자 -김채정 자매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여호수아 5장 13~15절 제 목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1.10/13(주일) 온세대 연합예배입니다. 2.온세대 연합예배 인도찬양은 청년부가 섬깁니다. 3.다음 주일 10/20(주) 대표기도는 문은설 자매입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11시	유년주일학교 주일 1부 오전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5:00	청년부 주일 오후2시



기독교 기본교리

본 내용은 대덕연구단지 직장성경공부에서 10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의 일부이다.

제 24과 죽 음

죽음은 생명의 정지 상태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어느 때든지 찾아온다. 현실에서의 모든 꿈도 죽음 앞에서는 산산히 깨어지고 일단 죽음이 문을 두드리면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 하고 죽음을 잊고 살려고 한다. 과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신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정립 할 때에 확실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다.

1. 죽음의 정의

죽음은 육체의 영혼이 분리 되는 것이다. (전 3:20-21) 성도가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간다. (전 12:7)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흙과 함께 썩어간다. (시 90:3, 욥 34:15)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전 12:7)

2. 죽음의 기원

죽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창 2:17) 말씀 하신데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데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실과를 따먹고 육신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 (엡 2:1) 하나님과의 계약을 불순종한 결과로 사람은 자동적으로 생존의 의미를 잃고 죽게 된 것이다. (겔 10:20, 약 1:5) 사도 바울은 “한 사람(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왕 노릇 하셨다 ” (롬 5:17)고 했다. 이 죄와 사망은 유전되어 전 인류를 주장하게 되었다. (롬 3:10, 3:23, 시 51:5)

3. 죽음은 죄 값이다.

죽음은 처음 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지은 죄의 결과로 온 형벌이다. (창 2:17, 3:19, 롬 5:12, 6:23)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롬 1:32) 정죄이고 (롬 5:16) 저주이다. (갈 3:13)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으신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고 영생하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영적사망이 오고 죽어야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육신 상으로 죽은 경우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을 쓸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원인은 죄이며 죄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4. 성도의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발판이 된다.

성도의 죽음은 생의 끝이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것이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

서는 부활도 없는 것 같이 성도는 죽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향(歸鄉)이다. 성도의 국적은 천국이다. (빌 3:20) 죽음이란 세상의 수고를 다 끝내고 고향으로 향하는 영광스러운 개선의 행진이다. 성경은 죽음을 일컬어 「돌아가는 것」(왕하 22:20)이라고 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격에 찬 승리의 고백을 한다. (딤후 4:6-8) 성경은 죽음이 영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 (고후 5:8, 1:1-3)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했다. (살후 4:13-14) 죽음은 전혀 슬픈 것이 아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며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가는 감격과 소망이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침상은 결코 외롭거나 슬프지 아니할 겁니다. 아침에 깨어날 줄을 믿으면서 잠자리에 드는 평안한 침상이 될 것입니다. (고전 15:51, 빌 1:23, 고후 5:8)

5. 죽음은 생의 완성이다

성도의 죽음은 끝장이 아니다. 오히려 생의 완성이다. 육신의 부패성을 다 벗어 버리지 못하여 날마다 탄식하여 육의 몸을 벗어 버리며 예수의 재림시에 몸까지 구속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롬8:22-23) 신자는 믿음으로 영은 구원을 받았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몸은 여전히 사망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실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주님의 영광을 입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의 공통적인 탄식이다. 성도는 이 땅에 다 실현하지 못한 거룩, 성화를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거룩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죽음은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되는 과정이고 완전 성화 되는 과정인 것이다.

6. 죽음의 묘사(描寫) :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잠들었다”고 하셨다. (요 11:11) 성도가 죽는 것은 새 아침, 천국의 아침을 기약하며 잠자는 것이다.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의 아침에서 깨어나 주님을 만나게 된다. (고전 15:18, 20, 51)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그 날이 우리는 세상에서 마지막날이 될 것이다. (눅 12:20) 주께서 왜 성도의 영혼을 데리러 오시는가? 이 땅의 고생을 끝내고 쉬게 하시려는 것이다. 육체는 늙게 되면 낡은 집이 허물어 지듯이 이 땅에서 허물어지게 된다. 그것이 육신의 죽음이다. 그러나 영은 소멸되지 않고 주와 함께 거하게 되고 주께서 재림하실때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고후 5:1, 4, 벰후1:14) 죽음은 단 1회적이다. 죽음에는 연속도 없고 일단 가면 다시 오지 못한다. 우리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은 다 그 길로 갔다. (삼하 12:23, 욥 16:22)

7. 죽음 후에는 심판과 상급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쓰기를 “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 9:27)했다. 그 심판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데 달려 있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 (요 3:36)고 하였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요 3:18) 성도에게는 상급이 있다.

나눔식 소그룹 호세아 6:1~11(10월 8일 본문)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기 *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경배와 찬양)

Focus :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호세아 6:1~11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호세아 시대에 북 이스라엘은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앗수르의 위협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타락, 정의와 공의에 무관심함으로 인한 사회적 무너짐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사랑이 없고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은 등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유다가지도 북 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분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 그분께로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말씀 나누기

1. 관찰과 묵상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짜매어 주실 분은 누구인가요?(1절)

적용과 나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내 삶에 일어났거나, 일어나야 할 구체적인 변화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관찰과 묵상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했나요?(6절)

적용과 나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애(사랑과 긍휼)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 다지기

하나님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인 사랑과 긍휼을 앞세워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즉 인애를 행하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 가기에 힘쓰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기에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따라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말씀대로 인애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일에 마음을 쏟길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 한국어가 세계 각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 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함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길 기도합시다.
- 모리타니의 무어족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이들이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합시다.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안양대학교와 함께하는 교단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구기독교협의회 회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대전성시화운동본부공동회장. 부총회장.총회장. 안양대학교총동문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0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교회홈피 shinseok.net

주님의 시간에

Diane Ball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박근상

시무장로: 김일남 박헌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김종기 박성훈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 윤태영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신혜원 유혜환 오르간: 윤연정

찬양인도: 최의석 살롬찬양단:

방송.영상: 윤홍규 한현구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새가족위원회: 흙피 관리: 팀장: 최민관 민병진 한신희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이상열 태영성 주차관리 :

담임목사 방송시역

10 분 설 교	대전극동방송(FEBC)	매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주(토) 오전 10시 50분(로템나무)